



2014리용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관기



박재명

아산도서관 관장
pjaem@hanmail.net

1. 시작하는 글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2014리용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미래를 위한 도서관을 어떻게 가꾸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장소는 프랑스 리용의 컨벤션센터이고, 주제는 ‘도서관, 시민, 사회: 지식의 융합’이었다.

2. 서울에서 파리, 파리에서 리용까지

먼저 2014리용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안내(한국도서관협회)와 전체일정 및 안전 등에 관한 안내가 있었고, 참가자 상견례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세계도서관대회의 일정과 윤곽을 알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2006년에 서울에서 세계도서관대회가 개최되었고 그때 참가 경험이 이번 세계도서관대회와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었다.



첫째 날(8월 15일, 금)은 인천공항에 모여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향했다. 드골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파리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실감할 수 있었다. 호텔까지 가는 동안 개선문을 지

나고 에펠탑을 짧게 관람하였고, 에펠탑 3층에서 보는 파리의 시가지는 아름다웠다. 멀리 몽마르트르 언덕과 노트르담 성당과 센 강의 유람선이 보였다. 말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니 감회가 새로웠으며, 늦은 시간인데도 에펠탑 주

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둘째 날(8월 16일, 토)은 아침을 먹고 풍피두 광장과 국회의사당을 지나가며 잠깐 들르고 센 강 유람선을 탔다.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전시관 건물과 베르사유 궁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강변에는 일광욕하는 시민도 있고, 자전거 타는 풍경도 있었다. 테세베를 타고 리옹으로 출발했다. 산이 별로 없는 평지를 두 시간 넘게 달려 마침내 리옹에 도착했다.

3. 세계도서관대회와 리옹에서 있던 일

전면에 론 강이 흐르고 후면으로는 돌레가 십 리는 될 만한 공원이 받쳐주는 풍수학적으로 좀 갖춘 그럴듯한 장소에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녁에는 언어별 모임이 있었다. 한국어 참가자 모임에는 한국어를 좋아하는 외국인과 교포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최은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 윤희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였다. 대회주최기관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이 와서 환영인사도 하였다. 만나서 반갑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2006년 한국이 주최한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했었는데 서울이 매우 아름답고 서비스도 좋았다고 하였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도서관 활동과 관련 산업 및 학문 전반에 걸친 국제상호 이해의 증진과 협력, 조사,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1927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약 150개국의 1,500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날(8월 17일, 일)은 개회식과 리더십 포럼, 전시회 등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장의 번역용 이어폰이 동나서 줄을 썼다가 허탕치고 다른 곳에서 간신히 번역기를 구해 개회식장에 들어가니 이걸 전시장에서만 작동되는 것이란다. 전시장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었고 부스에서 주는 선물은 별로 없었다.



넷째 날(8월 18일, 월)에는 알프스의 몽블랑 투어를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최은주 위원장이 한국도서관 정책에 대해 발표하는 날이다.

여행을 할까 발표를 들을까 그것이 문제였다. 아쉽지만 공무에 충실하기로 하고 회의장에 들어갔다. 위원장이 발표를 참 잘 하

셨다. 외국인들이 몇 가지 질문하는 것에도 시원하게 답변하시고 행사는 무사히 잘 끝났



다. 도서관 발전의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들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다섯째 날(8월 19일, 화)에는 분과별 주제발표장과 포스터세션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문화의 밤을 참여하기로 하였다. 2006년 한국에서는 관광버스에 경찰차가 호위하면서 멋지게 이동하였는데, 여기서는 각자 알아서 찾아가란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걸어서 간신히 찾아가니, 공장 창고 같은 큰 건물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왜 안 들어가고 줄을 섰느냐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기다려야 한단다. 유럽대륙도 만만디인가 보다. 우리 같으면 제시간에 준비가 안 되면 난리가 날 텐데 행사 참 못 한다. 준비가 끝나 들어가는데 신분 확인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명찰을 놓고 왔다. 그래도 배짱으로 들어가겠다고 우겼더니 따라오라고 한다. 여권과 대조하여 명단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와인 한잔 먹는데 표가 있어야 한단다. 절차가 복잡해야 선진국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표를 쥐서 한잔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다. 끝나고 옆문으로 나오는데 정문으로 나가란다. 보안 때문에 들어간 사람과 숫자가 맞아야 한단다. 정문으로 나오는데 나가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끝까지 있던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울동만 하다가 끝났다고 한다. 멋진 예술이나 공연을 기대했는데 그에 못 미쳤다.



여섯째 날(8월 20일, 수)에는 대도시 도서관 분과의 액세스권, 프라이버시, 학습, 능력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비뇽과 엑상프로방스를 가기로 하였다. 발표내용은 사전에 제공되는 콘텐츠를 보기로 하고 버스에 올랐다. 엑상 지방의 미라보 거리에서 기타와 첼로, 전자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프랑스에서는 거리 연주를 흔히 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다. 미라보에서 처음 보았다. 아비뇽 교황청을 보고 고교 시절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렵풋하게 생각났다.

일곱 번째 날(8월 21일, 목)에는 학교도서관 분과 내용을 보니 지식의 합류와 전 세계로부터의 지지를 발의하는 내용이다. 지식관리 분과의 내용도 들어보니 디지털시대에 지식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을 주된 내용으로 디지털 변환과 신기술의 이용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었다.

여덟 번째 날(8월 22일, 금)에는 공식일정으로 도서관 방문이 있는 날이라 버스를 타고, 먼저 파두도서관을 찾았다. 리움 시내의 파두 백화점과 가까운 거리라서 변화가임을 알 수 있었고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자리하여 학생들 이용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러



나 이용자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직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도서관을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용자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 몇 가지 우리와 다른 규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첫째는 직원의 허락이 있거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치금 15유로(45,000

원)를 내야 하며, 셋째는 대출기간 2주가 넘으면 매 주 지연금 2유로(3,000원)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도서관의 규모에 비해 직원이 많다는 점(각 실마다 사서 2명씩)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는 점(학교의 숙제, 연구, 주민 요구)이었다.

도서관 방문 후 오후에 기차역에서 테제베를 타고, 파리로 이동하였다.

4. 맺는말

아홉 번째 날(8월 23일, 토)에는 아침 일찍 식사하고 프랑스국립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의 철학을 중요시하여 내용 설명보다도 사상의 설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 바탕에 철학적 사상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프랑스 문화를 조금 엿볼 수 있었다. 프랑스 왕정과 혁명에 관한 그림을 벽에 전시하고 그 설명과 함께 도서관의 변천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을 들으면서 기계화된 도서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오후에는 파리 시내를 탐방하고 루브르 박물관을 참관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밤 9시에 파리를 출발하였고, 그리고 8월 24일 한국에 도착했다.

가장 소중한 배움은 우리가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반성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공짜라는 이유로 노숙자의 잠자리로 전락하는 휴게소 서비스와 수험서를 가지고 와서 문제만 푸는 독서실 서비스, 심심한 사람들의 전자오락, 비디오 제공 서비스는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하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 느낀 이야기를 전하고, 토론도 하고, 좋은 점은 실천하리라 다짐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㉞